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22곳 선정, 7월부터 지역내 참여 병원에서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17일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1차년도, 2024.7월~2025.6월) 지역을 22곳 선정했다고 밝혔다.

※ 올해 하반기 중 1차년도 시범사업 지역 내 참여 희망 의료기관 추가 모집 예정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은 치매 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치매환자의 치매증상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역 선정을 위해 지난해 참여 의사(의료기관)를 공모하였으며, 2개월간(2023.12.29.~2024.2.29.) 의료기관 소속 의사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신청 의사 수, 지역적 균형, 환자 수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구 규모, 군(郡) 등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22개* 시·군·구를 선정하였다.

* 서울 강동구·노원구, 부산 부산진구, 대구 달서구, 인천 남동구, 광주 북구, 대전 중구, 울산 남구, 세종시, 경기 고양시·용인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홍성군,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영암군,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창원시, 제주 제주시

시범사업 지역 및 해당 지역의 참여 병원 목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이번에 선정된 지역의 참여 신청 의사는 시범사업 교육 이수 등 자격*을 갖춘 후, 올해 7월부터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심층 교육·상담,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등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의료기관 소속의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보건복지부 치매전문교육 이수자로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교육을 이수한 자

※ 교육 일정은 5월 중 관련 학회, 국가치매교육홈페이지(edu.nid.or.kr)등을 통해 공지 예정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2년간 운영한 후 2026년 하반기부터는 전국적 실시를 검토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시범사업 1차년도 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2차년도에는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관심을 갖고 많이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라고 말했다.

또한, “치매는 몰라서 더 두려운 병이라는 측면에서, 본 시범사업에서는 치매 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가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개인별 치매 증상에 따른 대처법 등에 대해 심층 교육·상담(보호자 포함)을 하고, 필요한 약 복용이나 치매안심센터 인지 자극 프로그램 등을 꾸준히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강조하였다” 라고 하면서,

“참여 의사 및 의료기관에서는 관련 교육 이수 등 요건을 갖추어 올해 7월부터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치매환자가 살던 곳에서의 삶을 유지하면서 질 높은 치료·관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별첨> 1.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2. 1차년도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및 의료기관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관실 노인건강과	책임자	과 장	하태길 (044-202-3530)
		담당자	사무관	정유정 (044-202-353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실 지불제도평가부	책임자	부 장	오주연 (033-739-1670)
		담당자	팀 장	문연미 (033-739-1655)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치매사례관리팀	담당	팀 장	이경해 (02-6260-3130)
			사 원	이주현 (02-6260-3135)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